



# 忠北大同門會報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제52호

발행인 : 윤양택 편집인 : 어강석



## 회장 취임사



제33대 회장 윤양택

###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자랑스러운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33대 회장을 맡게 된 윤양택 인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이 같고 닦아 놓으신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수갑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모교와 동문회에 대한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열정으로 4년 동안 제31대, 32대 총동문회를 이끌어 주신 조천희 전임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동안 충북대학교 동문회는 역대 회장님과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역대 회장님들께서 세워놓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좀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총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참여가 최우선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동문회 행사를 할 수 없었기에 동문들의 결속 및 연대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3대 총동문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부지런히 동문들을 찾아가고 대화를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직장별, 지역별, 학과별, 직능별 동문회를 독려하거나 활성화하여 좀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동문회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조천희 전임 회장님의 노력과 김수갑 총장님의 배려로 총동문회가 역사관 2층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대회의실을 '동문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어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동문회의 역사를 담아내어 후배들에게 발자취를 남겨 주겠습니다. 셋째, 동문의 동향 및 모교의 소식을 더 많은 동문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절되었던 동문회보를 지난해 복원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알차게 지면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년째 멈춰 있는 동문 인명록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타교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

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동문의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 측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좀 더 많은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재학생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졸업 후 동문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일류대학이라고 이름난 대학이 동문회도 잘됩니다. 이는 동문이 사회 각층에서 성공한 인물이 많고 그들간 연대의식이 강하고 후배들도 그 성공한 그룹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그 대학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대학이 일류대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대 동문이 70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중추대학 출신답게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공의 신화를 쓸 수 있도록 총동문회 역할을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제68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68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 7일 14시 총동문회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부 행사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 감사보고, 2022년 사업과 신입 임원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부 행사는 회장 이·취임식으로 충북남성합창단의 축하공연, 감사패 수여, 이임사, 취임사, 축사, 공로패 전달 등으로 진행되었다. 31대, 32대 회장을 역임하고 이임하는 조천희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개교 70주년 행사에 협조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신임 33대 윤양택 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양한 동문조직 신설과 동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동문록 발간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동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로 구성된 충북대상공인회(회장 이수현)가 동문회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하여 참석 동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총동문회 표지석 제막



지난 3월 16일 오후 3시 원로 동문과 총동문회 임원 및 학교 주요 보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총동문회 사무실은 대학본부 7층에 있었으나 비좁고 동문들이 쉽게 찾기 어려운 곳에 있었다. 이에 2021년 12월 모교의 역사와 동문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옛 제2분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충북대학교역사관 2층에 총동문회 사무실, 총동문회장실, 총동문회 회의실 등을 마련하여 이전했다. 지난 3월 8일에 충북대학교역사관이 정식으로 개관하면서, 총동

문회 사무실 이전 기념행사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총동문회 사무실임을 알리기 위한 표지석은 조천희 총동문회장의 회사로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총동문회 표지석 제막식과 더불어 총동문회 2022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총동문회 사무실의 이전에 힘을 보태준 모교 이문순 기획처장, 임창빈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김선화 기획과장, 이성식 시설과장, 방성수 재무과장, 김운영 입학과장 등에게 총동문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김수갑 동문 총장직 사퇴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 동문이 지난 8월 1일 총장직을 사퇴 하였다. 이에 충북대학교는 현재 정의배 교무처장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수갑 동문은 지난 2018년 8월 23일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국가 중추대학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김수갑 동문은 모교 출신 첫 번째 총장이었다.

충북대학교역사관 개관식 개최

지난 3월 8일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학교 역사관이자 총동문회 사무실이 입주한 충북대학교역사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충북대학교역사관은 독립 충북대학 시절인 1956년 12월 28일에 준공해 제2본관으로 사용되었으며, 교양강의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등으로 사용되다가 건물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방치되었었다. 그러나 2021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1956년 내덕동에서 개신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 두 번째로 준공한 제2본관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2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충북대학교의 역사를 담은 충북대학교역사관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개교 70주년 기념일인 2021년 9월 27일에 개관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해를 넘겨 올 3월 8일에 정식으로 개관을 하였다. 충북대학교역사관에는 모교 70년의 역사자료를 담은 학교역사관을 비롯하여 총동문회 사무실과 회의실, 학교사 아카이브 자료실, 첨단강의실, 대학원 라운지, 북카페 등이 마련되었었다.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2학년도 첫 번째 교무회의가 총동문회 회의실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우리 대학은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신입생과 함께 시작했다. 우리 대학은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대표 학생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면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입학한 학부생 3,499명, 대학원생 1,293명 등 모두 4,792명이 새로운 개신가족으로 우리 대학과 함께하게 되었다. 입학식에서는 정의배 교학부총장이 학사보고를 하고, 신입생 대표로 의과대학 안정훈 학생이 입학선서를 했다. 이를 통해 학칙 및 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포부 등 대학생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김수갑 총장의 입학식사와 동문 선배들의 축사,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축사는 도종환 국회의원(국어교육 73)과 이장섭 국회의원(국문 82)이 영상으로 새로운 개신가족이 되는 신입생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학교 학생동아리 ‘푸른소리’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하였다. 김수갑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충북대에서 첫걸음을 시작한 신입생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란다. ‘왜?’ 라는 물음을 계속 던져 근본의 이치를 깨우치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또 진정한 대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정진하길 바란다”라며 입학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충북대학교 박물관 반구대암각화 탁본 특별전 개최

모교 박물관에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보로 지정된 울산 반구대암각화 탁본 특별전을 개최했다. 반구대암각화는 대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새긴 것으로, 한국의 선사시대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전시한 탁본은 1986년 5월에 당시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와 인문대학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울산까지 가서 태화강 절벽에 새겨진 암각화를 직접 탁본한 것이다. 모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 탁본은 너비가

12.7m, 높이가 3.53m나 되는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탁본의 크기가 워낙 커서 1986년 9월에 잠시 전시한 뒤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문을 연 CBNU 스포츠센터 전시실에서 무려 36년 만에 공개한 것으로 학계와 언론사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6월 4일에는 당시 탁본에 참여했던 동문 20여 명이 직접 전시회를 관람하며 옛 추억을 회고했다.



정문 사인물 리뉴얼 기념 제막식 개최

우리 대학은 6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학 정문 앞에서 새롭게 리뉴얼된 정문 사인물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수갑 총장을 비롯한 대학 간부진들과 보직교수,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정문 사인물 리뉴얼은 지난 2021년 충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1999년부터 사용해 온 노후화된 UI를 새롭게 리뉴얼해 선포했고, 이에 따라 정문 사인물도 새로운 UI를 반영하여 새롭게 교체했다. 이번 리뉴얼은 지난 1월 11일

부터 옥외 안내 사인물 개선공사를 시행해 2월에 착공, 시안 작성 및 기관명 변경 반영 기간을 거쳐 5월 한 달간 시안 수정을 거쳤고, 6월 7일에 최종 준공과 함께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수갑 총장은 “70주년을 맞아 리뉴얼한 심벌마크 및 기념서체로 트렌디하고 친근한 대학 이미지 조성에 한발 다가선 느낌”이라며 “충북대는 지역민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학생들의 역동적인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강의 실시

우리 대학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대면강의를 진행하였다. 21학년도 2학기에는 1학년 학생들이 중심으로 부분적인 대면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22학년도 1학기에는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전제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대면수업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안전한 대면강의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 매일 강의실을 방역소독하였으며, 학생들은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여 매일 체크하고, 수업 전 발열 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강의실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벗고 대화 금지, 학습과 무관한 소모임을 위한 강의실 사용 금지, 강의실 내 취식 금지, 칸막이 없는 강의실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했다. 만일 학생이 확진될 경우, 즉각 격리하고 격리 해제일까지 대면수업 참여를 금지하였다.(공결 처리)확진자 발생 시, 수강 강의실은 즉시 환기 및 소독 후 대면수업 진행하였으며, 강좌 수강생 대비 확진자 및 격리자 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수가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 감시 해제일(해제일로부터 3일 연장 가능)까지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중증 악화로 인해 수업 운영이 불가능하면 병가 처리 후 결·보강 조치를 했다. 전면적인 대면 수업 시행에 학생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비대면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수업 질도 좋고 집중도 잘된다고 하였다. 특히 과 특성상 실험과 프로젝트 수업이 많은 학과는 대면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의가 전면 대면강의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활동 등도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발대식을 4월 8일에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앞서 총동아리연합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신문화광장에서 동아리 가두모집을 진행하였다. 5월달에는 3년만에 총장배 축구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오랜만에 대학생활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총학생회 나:Be\_bloom 발대식 개최

- 충북대, 캠퍼스에서 봄밤을 노래하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4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개신문화광장에서 총학생회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인 '나:Be\_bloom'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북대 나:Be 총학생회는 “당신이 그리는 대로, 모두가 꿈꾸는 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학생을 대표해 활동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총학생회 발대식은 김수갑 총장과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학생자치기구 소개, 그리고 중앙동아리 'SIVA CREW'와 '푸른소리'의 공연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밤 9시부터 시작된 봄 영화제에서는 상영작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함께 학생들은 봄밤의 낭만을 즐겼다. 본 행사에 앞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솔빛과 개신 지하광장 등에 다양한 포토존과 '인생네컷' 부스를 운영해 누구나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했으며, 많은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오후에는 메인 무대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관객참여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 참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전 10시부터는 학생회 임원들로 팀을 구성해 학내 캠퍼스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클린캠퍼스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나:Be 총학생회 및 학생들이 꿈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개신인들이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 캠퍼스의 봄날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6명 합격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2022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6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여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 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향후 1년간 중앙부처에서 수습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를 통해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우리 대학 학생 중 이번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학생은 행정직군 변세윤(농경제학과 16학번), 유하진(영어영문학과 17학번), 최진희(국어국문학과 17학번), 기술직군 박현수(환경공학과 16학번), 안두혁(도시공학과 14학번), 정일준(신소재공학과 14학번) 학생 등 6명이다.

우리 대학은 취업지원본부와 인재양성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지원본부는 PSAT특강 및 강좌 수강료 지원, 필기시험 모의고사, 합격선배 멘토링 등을 운영하는 “지역인재 7급 지원반”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성호 취업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7급을 포함하여 5급 공채 등 공직 준비반 및 공인회계사반 등 전문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는 인재양성원은 1인 1좌석 전용 열람실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멀티미디어실이나 스터디룸을 통하여 각종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팀별 스터디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물론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격을 위한 지원을 한다.

제41회 총장기 학과 대항 축구대회 개최

우리 대학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제41회 총장기 학과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각 학과마다 체육생활을 즐기는 시간을 통해 단합심과 애교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대회에는 모두 20개 학과가 출전해 실력을 겨루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학생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5월 23일 오후 1시 20분에 대운동장에서 대회 개회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수갑 총장을 비롯한 대학 간부진과 총학생회 임원진, 각 학과 출전선수들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수갑 총장의 시축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김수갑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장배 학과 대항 축구대회에서 학생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과도한 경쟁보다 한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영학부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공업화학과, 3위는 의과대학이 차지하였다. 또한 축산학과는 페어플레이 팀으로 선정되었다.



### 2022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총동문회는 지난 3월 16일 오후 3시부터 총동문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1호 의안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이었다. 감사 보고에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1호 의안과 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

으며 3호 의안인 임원 선임은 회장에 윤양택(컴공 82), 감사에 김용은(과학교육 72), 정삼균(경제 95)이 선임되었다. 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된 윤양택 회장은 컴퓨터공학과 82학번으로 2020년부터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이임하는 조천희 회장을 보좌해 원만히 사무처를 이끌어 왔다는 평이며 김용은, 정삼균 감사는 지난 임기에 이어 연임하게 되었다.

### 동문 상견례 및 임원 위촉 행사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청주S컨벤션센터에서 동문 250여명과 동문 중 지방선거 출마자 50여명 등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동문 상견례 및 제33대 임원 위촉'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윤양택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데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수갑 충북대 총장(법학 80)을 비롯해 도종환 국회의원(국어교육 73)과 이장섭 국회의원(국문 82), 정상혁 보은군수(임학 60), 이재로재경동문회장(영교 74), 배득렬 충북대재직동문회장(중문 81), 고근석 충북도청동문회장(법학 84)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강신우, 김주섭, 조천희 역대 회장들이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다. 충북대 출신으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가운데 이범석 국민

의힘 청주시장 예비후보(행정 85), 송재봉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대학원)를 비롯한 50여명의 도의원 및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 시의원 및 기초 비례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원 위촉과 더불어 총동문회 발전기금전달, 총동문회와 충북대학교동물병원간 MOU, 총동문회와 제이원청주호텔간 MOU가 체결되어 향후 동문회 회원들은 동물병원과 제이원청주호텔 이용시 할인 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동문들이 승리의 꽃을 달아주는 퍼포먼스를 열고 후보자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동문회 조직을 재건하고 충북대 출신 출마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여 궁극적으로 충북대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당선자 축하연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6월 20일 오후 6시30분 청주 그랜드호텔 지하홀에서 1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6.1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당선 동문 40여명과 김수갑 총장, 도종환 국회의원, 정상혁 보은군수, 총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윤양택 총동문회장과 동문회 임원들이 당선 동문들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번 2022 6.1지방선거에서 충북대 출신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4명,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6명 등 총 43명이 당선됐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김문근 단양군수, 이범석 청주시장, 이재명 증평

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4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으로는 충북도의원 10명, 서울시의원 2명, 세종시의원 1명 등 13명이 당선되었고 기초의원으로는 청주시의원 18명, 충주시의원 1명, 제천시의원 2명, 증평군의원 2명, 진천군의원 1명, 원주시의원 1명, 화천군의원 1명 등 26명이 당선됐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문 43명의 당선으로 충북대의 정치권 도약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충북대 동문회의 위상이 한껏 제고되었다."고 말했으며 "특히, 당선된 젊은 후배들이 시정과 군정, 의회에 신선한 바람으로 역할을 하며 재선, 3선 할 수 있는 탄탄한 정치가"가 될 것을 당부했다.



### 총학생회 임원 간담회 개최

총동문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부터 개신동 소재 식당에서 문지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집행부,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40여명의 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상호 인사 및 자기소개, 간담회, 만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과의 만남은 미래의 동문을 만나는 것이며, 총동문회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지훈 총학생회장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가 처음 있는 일이며, 보다 나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동문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또한 윤양택 회장은 이날 학생회 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춘계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에 격려금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31대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배득렬 (중문 81)



지난 4월 취임한 배득렬 제31대 교수회장(중어중문학과)은 다소 무거운 취임소감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배 회장은 '충북대학교 교수회 2022학년도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 자기 회장에 선출됐으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배 회장은 임기초반부터 총장선출이라는 큰 과제를 맡아 고군분투하고 있다. 교수들의 대표로서 직원회, 학생회와의 총장투표비용 협상에 나서는 등 총장 선출과 관련된 업무를 거의 책임지 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회장은 “교수들의 투표비율을 78%로 제안했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임명직 총장시대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오송바이오 캠퍼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배 회장은 아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카이스트가 왜 오송에 진출하려고 하겠는가”라면서 “카이스트가 바이오의 약분야까지 분야를 넓히는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지역거점국립대인 충북대로서는 우리의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

는 시도”라고 말했다. 배 회장 지난 2001년 충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충북대 국제교류원장, 충북대 학생처장, 충북대 인문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충북대 초대 총동문회장인 배대식 명예교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만큼 충북대에 대한 애착이 크다. 배 회장은 “총장선출이나 오송캠퍼스 문제나 모두 충북대의 위기를 극복할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의 임무”라면서 “아버지의 땅이 녹아있는 캠퍼스를 미래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땅방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원 동문 김세중 조각상 수상

박기원 동문(미술교육 85)이 지난 6월 24일 제36회 '김세중 조각상'을 수상했다. '김세중조각상'은 서울대 교수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낸 김세중(1928-1986) 조각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세중기념사업회에서 1987년 제정했다. 해마다 조각 분야에서 최고의 작가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6명의 수상 후보 중 심사위원 만장일로 박기원 동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각가 김세중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기원 동문은 1989년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시작으로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작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작년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자신의 작품을 모교에 기증하였고, 개교 70주년 기념 동문 미술전인 'NOVA APERIO'에 출품하는 등 모교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박기원 동문(왼쪽)과 부인 강공훈 동문(미술교육 85) 부부



2022년도 임원회비 납부자 명단

<2022년 8월 23일 기준>

■ 회장 : 윤양택 2,000만원

■ 부회장 : 50만원

권용봉 김동식 김철문 박경국 박종서 박진희 신동엽 심우용 이영노 이용근 이장섭 이전명 이종영 이현우 임병운 장수정 장윤식 조남훈 한만혁 홍성민

■ 상임이사 : 20만원

곽종국 구민형 김상혁 김선각 김선희 김성만 김영관 김요식 김정희 맹승진 박영석 박종국 박한규 서지민 신광균 신홍섭 신화수 이범홍 이성우 이호진 장석천 최 울 최성호 최영준 허태영 황운서

■ 평생회비 : 권용봉(건축 82) 50만원 한혜숙(의학 95) 50만원 박종국(의학 85) 30만원

■ 연 회 비 : 박재인(임학 73)

■ 총동문회 발전기금 : 충북대상공인회 300만원 김준기(통계 91) 250만원 허태영(통계 91) 250만원

SYP + 세 연 약 국

세브란스병원 처방전 조제

- 1. 신속 정확한 조제
- 2. 세브란스 병원 모든 진료과의 처방 조제
- 3. 친절한 복약 상담(상담전문 약사 항시 대기)

대표약사

박순배 (약학 66)

- 전) 역대총학생회장협의회 회장
- 전) 재경 충북대동문회 회장

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연세대정문 응급실

세연약국 (연대동문회관1층)



▶ 대형주차공간 확보(연대동문회관내 무료주차)

제33대 임원명단

회장

윤양택 컴공 82

감사

김용은 과학교육 72 정삼균 경제 95

사무처장

황동민 안전 87

자문위원 (26명)

김내수 축산 68 김현준 체육교육 63 변상권 영어교육 70 유무웅 체육교육 61 임창재 농학 64 정찬문 연초 72
김병동 체육교육 64 류태기 체육교육 61 석영선 연초 68 이중근 체육교육 70 정동주 농학 63 조성찬 농공 69
곽정수 농공 63 김윤배 약학 73 박동준 영어교육 73 송범현 농학 73 이상훈 축산 63 정상길 농화 64 최한기 체육교육 72
김광렬 화공 71 김태훈 화공 70 박인성 행정대학원 연광석 농공 64 임상화 약학 70 정상혁 임학 60 한종구 국어교육 72

부회장 (82명)

김진균 체육교육 81 박완배 법학 81 신효섭 행정 88 이광형 축산 82 이차영 행정 79 정희섭 건축 87
김진상 토목 79 박완희 정보 92 심우용 경제 87 이면재 약학 80 이한목 경제 80 조기식 무역 79
김철문 법학 85 박종서 토목 80 양승덕 의학 85 이범석 행정 85 이현우 토목 86 조남훈 산업대학원
김형근 경영 78 박종진 체육교육 82 엄정식 무역 86 이영노 컴공 86 이현웅 도시 88 조성록 임학 82
김홍래 축산 87 박진희 국문 91 엄태영 화공 77 이원배 산업대학원 임병운 농공 14 조성훈 사법 90
노동영 법학 97 배득렬 중문 81 연경환 경제 81 이용근 기계 86 임회중 건축 85 최병윤 건축 80
노재희 컴공 85 배바로니 법학전문대학원 오유식 컴공 86 이인호 컴공 82 장동석 제약 96 최태호 임학 79
도종환 국어교육 73 변은영 정외 88 유상용 약학 86 이장섭 국문 82 장선배 경제 81 최현호 법학 81
류근형 토목 86 송태영 행정 79 유용철 회계 91 이재신 법학 86 장수정 산업대학원 한만혁 수학교육 82
김경국 농경 77 신강일 불문 86 윤종락 법학전문대학원 이진명 약학 96 장윤식 식품 82 홍성민 의학 90
박기수 농학 93 신동엽 무역 82 윤종민 법학 81 이종영 경영 83 정봉수 법학전문대학원 홍종갑 법학 91
박덕규 건축 86 신태수 약학 84 윤현우 산업대학원 이진희 건축 80 정중홍 경영대학원 황영호 행정 80

상임이사 (66명)

김선희 천문우주 92 김태석 정외 87 변기철 경영대학원 안광국 토목 85 이범홍 무역 87 최영준 사학 90
김성만 임학 85 김환진 경영대학원 서상택 농경 85 안효풍 경제 81 이봉직 토목 82 최윤 토목 03
김영관 사학 85 김현주 대학원 서정욱 임학 90 양영순 불문 83 이우범 국문 82 허태영 통계 91
김영주 전기 91 맹승진 농공 86 서지민 고미술사 95 오세욱 토목 86 이은봉 농학 82 허현주 경영대학원
김요식 화공 78 박결순 역사교육 77 신광균 전기 94 우선희 농학 80 이종규 토목 89 홍기남 토목 89
김은영 가정교육 86 박수진 경영대학원 신의섭 철학 82 유희재 토목 81 이준범 사법 93 홍진태 약학 80
김웅운 경영 96 박영석 의학 93 신창범 무역 95 윤병인 대학원 이호진 토목 93 황운서 경제 82
김정희 미술교육 78 박종국 의학 85 신현구 경제 82 이강우 경영대학원 임달호 경영 84 황창호 경제 92
김찬중 경영 82 박철용 농학 83 신홍섭 경영 84 이광희 농생물 82 장석천 법학 90
김철구 경영 96 박한규 사학 84 신화수 경영 89 이기수 미술교육 81 최성호 축산 91

동문인사

충북대학교 2022년 7월 1일

- 김선화(영문 86) 국립특수교육원

청주시청 2022년 7월 1일

- 박철완(중문 85) 기획관리실장

경찰청 2022년 8월

- 신효섭(행정 88) 천안서북경찰서장

청주세무서 2022년 7월

- 송영주(중문 84) 청주세무서장

충청북도의회

- 황영호(행정 80) 의장

국회사무처

- 홍형선(농경 86) 사무차장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 7월 1일 (행정직)

- 노재경(법학 05) 노사협력과 과장
- 김부일(건축 99) 시설과 과장
- 이의연(공법 02) 해양교육원 원장
- 박정희(통계 88) 예산과 예산팀장
- 박미숙(가정교육 86) 예산과 학교회계팀장
- 김순이(회계 88) 예산과 법무팀장
- 신정희(행정 93)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복지팀장
- 김용성(무역 90) 총무과 총무팀장
- 이세형(임학 86) 행정과 의회협력팀장
- 최해경(식품 87) 재무과 사학학운위팀장
- 장영철(수학 85) 시설과 교육공간기획팀장
- 박진항(축산 83) 총무과 과장
- 양희찬(수학 82) 행정과 과장
- 윤교한(행정 89) 행정과 과장

충청북도청 2022년 7월 1일

- 박해운(금속 82) 농정국장
- 홍순덕(통계 83) 정책기획관
- 조경순(중문 85)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 박기순(행정 84) 제천부시장
- 강성환(무역 84) 보은부군수
- 이철호(물리 83) 안전정책과장
- 이수현(사학 88) 자치행정과장
- 곽홍근(토목 84) 보건정책과장
- 민영완(국문 84) 농업정책과장
- 정정훈(경영 83) 대변인
- 최필규(수학 84) 혁신도시발전과장
- 심규홍(회계 87)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 이강운(재료 85)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 최경환(건축 81) 사회재난과장
- 이석식(토목 83) 자연재난과장
- 김종식(토목 84) 수자원관리과장
- 오재진(임학 82) 산림복지과장
- 홍명기(농공 84)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
- 길종호(토목 84) 도로관리사업소장
- 장영진(농학 87) 농산사업소장
- 이희두(연초 82)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 서정호(경제 84) 화장품천연물과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 9월 1일 (장학관 · 교육연구관)

- 김승환(사회교육 78) 산남고등학교장
- 임공묵(체육교육 79)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 박재환(수학교육 80)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김명철(역사교육 80)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손기준(지리교육 80)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정혜란(가정교육 80) 청주혜화학교장
- 윤인중(수학교육 80) 흥덕고등학교장
- 김명수(교육 80) 내토중학교장
- 송영광(과학교육 81) 공보관
- 오도진(수학교육 81) 진천여중학교장
- 황영동(사회교육 81) 단성중학교장
- 황윤성(과학교육 81) 음성중학교장
- 서주선(지리교육 81)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장
- 김신희(과학교육 81) 각리중학교장
- 김종섭(과학교육 81) 덕산중학교장
- 이동복(영어교육 81) 증원중학교장
- 이성희(교육 81) 옥천중학교장
- 정우섭(체육교육 81) 가경중학교장
- 조석기(수학교육 81) 오창고등학교장
- 황인경(수학교육 81) 청산고등학교장
- 김흥수(미술교육 82) 괴산오성중학교장
- 정한진(과학교육 82) 보덕중학교장
- 최재호(역사교육 82) 단양중학교장
- 권영균(과학교육 82) 수산중학교장
- 박규범(과학교육 82) 청주동중학교장
- 이현호(영어교육 82) 송학중학교장
- 전병성(교육 82) 연풍중학교장
- 조봉주(영어교육 82) 제천중학교장
- 최정순(윤리교육 82) 백운중학교장
- 나광수(체육교육 83) 충북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
- 조삼현(수학교육 83)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 정관숙(과학교육 83)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 음호철(체육교육 83) 안내중학교장
- 김동영(과학교육 83) 제천여자중학교장
- 신우성(과학교육 83) 서원고등학교장
- 한상현(과학교육 83) 금천고등학교장
- 장원숙(과학교육 84) 충북교육청 학교혁신과장
- 박대우(수학교육 84)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장
- 최용운(체육교육 84) 수안보중학교장
- 최명렬(수학교육 84) 대금고등학교장
- 김태선(과학교육 85) 자연과학교육원장
- 이필란(국어교육 85)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 김월현(영어교육 85) 감곡중학교장
- 권오장(영어교육 86) 칠금중학교장
- 김인성(교육대학원) 구정초등학교장
- 이재숙(교육대학원) 옥동유치원장
- 오서연(교육대학원) 금왕유치원장
- 염종현(교육대학원) 보광초등학교장
- 김정희(교육대학원) 산남유치원장
- 이양순(교육대학원) 옥산유치원장
- 이예자(교육대학원) 덕성유치원장
- 표경남(교육대학원) 창신유치원장
- 최종홍(교육대학원) 문상초등학교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 기초단체장 (4명)



**김문근**  
단양군수  
(행정대학원)



**이범석**  
청주시장  
(행정학과)



**이재영**  
증평군수  
(정책대학원)



**조병옥**  
음성군수  
(행정대학원)

## 광역의원 (13명)



**경기문**  
서울시의원  
(정치외교학과)



**김국기**  
충북도의원  
(철학과)



**김성대**  
충북도의원  
(정책대학원)



**김충식**  
세종시의원  
(경영대학원)



**박봉순**  
충북도의원  
(법학과)



**박진희**  
충북도의원  
(국어국문학과)



**유상용**  
충북도의원  
(약학과)



**이양섭**  
충북도의원  
(지역건설공학과)



**이옥규**  
충북도의원  
(택선정보학과)



**이옥희**  
충북도의원  
(대학원)



**이희원**  
서울시의원  
(건축학과)



**임병운**  
충북도의원  
(지역건설공학과)



**황영호**  
충북도의원  
(행정학과)

## 기초의원 (26명)



**김기동**  
청주시의원  
(생물학과)



**김성택**  
청주시의원  
(회계학과)



**김영근**  
청주시의원  
(행정대학원)



**김완식**  
청주시의원  
(법무대학원)



**김은숙**  
청주시의원  
(행정대학원)



**류희상**  
화천군의원  
(축산학과)



**박근영**  
청주시의원  
(법무대학원)



**박노학**  
청주시의원  
(농생물학과)



**박봉규**  
청주시의원  
(산업대학원)



**박상호**  
청주시의원  
(경영학과)



**박완희**  
청주시의원  
(정보통신공학과)



**변은영**  
청주시의원  
(정치외교학과)



**손준기**  
원주시의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송수연**  
제천시의원  
(아동복지학과)



**신민수**  
청주시의원  
(국제경영학과)



**안성현**  
청주시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이금선**  
증평군의원  
(경영대학원)



**이재명**  
진천군의원  
(농공학과)



**이재신**  
제천시의원  
(법학과)



**이한국**  
청주시의원  
(체육학과)



**임은성**  
청주시의원  
(대학원)



**정연숙**  
청주시의원  
(정치외교학과)



**정영석**  
청주시의원  
(대학원)



**한재학**  
청주시의원  
(대학원)



**허철**  
청주시의원  
(대학원)



**홍종숙**  
증평군의원  
(대학원)

서울시의원 이희원 (건축 09)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동문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희원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으로서 소신 있게 그리고 패기있게 부지런히 뛰어서 충북 대학교를 졸업하신 모든 동문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화이팅하여 어려운 현실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충북인들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많이 바쁘셨지요?

저희 서울시의회는 비교적 빨리 민주당과 협치하여 빠른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위로 배정을 받았으며,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역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각종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재까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쉽 없이 달려오면서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예, 서울이 고향입니다. 충북 청주도 제 모교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정말로 사랑하는 도시입니다만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토박이다 보니 지지가반도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 많은 활동을 했왔죠. 특히 마지막 저의 일 역시 서울을 무대로 일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활동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당선이전에어떤활동을하셨는지요?

대학교에서 교직원(기획처)으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제 학부 전공을 살려 도시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문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협 청년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조기 축구와 배드민턴 등 운동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회와 활동, JC 동작청년회의소 재정이사 활동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거 당시 의원님의 주요 공약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제1공약은 현충원 앞 동작주차장 유희부지를 활용한 전국최초 어린이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그리고 흑석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도 조기 해결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당-흑석역 구간을 걷고 싶은 힐링 문화테마 거리로 조성하고 사당역-이수역 구간 상업 지구 확대도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특히 교육 관련 공약이 눈에 띄는데, 특별히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건지요?

맞습니다. 제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선택한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 발전의 시작은 교육의 발전이라는 나경원 (전)원내대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와 더불어 지역의 아이들이 좀 더 질 높은 교육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역구에는 고등학교 유치, 유해시설로부터 아이들의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 과밀학급 시설 해소 문제, 시설 개선 및 그린 스마트 스퀘어 지정 등 다양한현안이 존재하는데, 지역 토박이로서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정치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정치인이 많이 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약진이 미약한데요. 지방선거는 지역 분들과 유대관계를 깊게 만들고 조직력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2030은 지역민분들과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선거에 임하면서 경제력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반도 약하죠. 그리고 정당 활동이나 사회적 경력이 적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소신 있고 당당한 정치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대교체와 함께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입니다!

<박진희 편집위원>

청주시의원 신민수 (국제경영 09)



시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당선을 위해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충북대학교 동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충북대학교 총동문회가 선거 기간 마련해 준 동문 상견례와 이후 열린 당선자 축하연을 통해 저는 충북대학교 동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새겼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대 동문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의정생활은 어떠하셨나요?

지방의원으로서 하루빨리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각계각층에 자문을 구하는 등 구체적 업무를 익히고 시민들이 빌려 주신 힘을 바르고 옹기 사용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행사를 가고 많은 민원인과 만났습니다. 임기 첫 달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바쁜 한 달을 보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 저출산, 낮은 혼인율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소수의 젊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해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주시의회는 연령적 다양성의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의회의 특정 연령대로의 쏠림은 시의회와 시민 간 원활한 소통을 막고 주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청년 주거 문제는 청년 의원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저는 동료 청년 의원들과 함께 시의회 산하에 청년 목소리를 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대학생 시절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자연히 많은 정치인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을 보고, 민주당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정치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부터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와 사회에 여러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북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역 사회의 어둡고 숨겨진

부분을 찾아 조명했습니다.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더 욕심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빌려주신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퇴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문사 퇴사 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셨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의 걱정은 없었는지요?

돌이켜 보면 부모님께서는 대개 저의 주도적인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결과가 불확실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념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믿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정치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가족의 응원 속에 정치에 나설 수 있던 것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창동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골목상권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낮 시간대 공동주택 주차공간 활용, 일방통행 변경,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화·개신·죽림동에서는 분동(分洞)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개신·죽림동은 청주시내 행정동 가운데 사회복지 수요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더욱이 3년 뒤에는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됩니다. 행정동을 2개 동으로 나눠 더 나은 주민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것인지요?

저는 '늘 주민 곁에 있는 시의원', '공부하는 시의원',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인은 시민들께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주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활력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동문들에게 드리는 인사로 인터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충북대학교를 타이틀(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로 달고 나왔고, 현재 제 선거구에 충북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학교와 인연이 깊다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충북대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애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거주지역 대부분이 충북대학교 인근이었고 충북대학교 울타리 안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모교의 인재상에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충북대학교 건학이념은 진리, 정의, 개척이며 이를 실천하는 인재상을 지향합니다. 저 또한 모교가 추구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빌려주신 힘을 바르고 옹기 사용하는 청주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편집위원>

국회의원 **엄태영** (화공 77)

**안녕하세요 의원님. 충북대동문으로서 동문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요즘 의정활동이 바쁘실텐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먼저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교와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국회의원으로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인 입법활동 그리고 정책과 예산 심의 등 이런 일련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단양 주민과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고 지역민과 동거동락하며 삶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신뢰받는 생활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요. 대학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대학 재학때의 '청년 엄태영'이 지금의 엄태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학시절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뒤 학과 학생회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3학년부턴 졸업할 때까지 4학기 연달아 학생회장을 맡다보니 리더로서 갖춰야 할 협의 조정 역할에 익숙해졌고,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통솔력과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회장 시절, 선·후배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고 사제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대인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의식을 설정하고 반드시 그 꿈을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짧은 혈기를 앞세워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을 무렵인 1990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향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열정을 바탕으로 망설임 없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키워준 나무는 결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더욱 자라서 그늘이 되고 재목이 되어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오로지 지역주민들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서른 초반 젊은 나이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봉사했습니다. 이후 재선 시의원, 재선 제천시장을 거쳐 지금은 국회의원 엄태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가장 기억남는게 어떤 것입니까. 가장 추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졸업한지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학시절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쉽게 떠오릅니다. 제 인생의 기반이 만들어진 온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클래식 기타 독주를 할 정도로 기타 연주에 심취해 있었던 저는 교내 클래식기타연주회 동아리 모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기타를 배우고 있었던 지금의 아내와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아내가 좋아하는 곡이라면 밤을 새서 악보를 그려다주고 합주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집 앞까지 내려다주면서 함께 사랑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시간을 보냈던 풋풋하고 설렘 가득한 추억들이 때 순간들을 행복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제천·단양 주민과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으로 대립과 반목이 아닌 국민의 뜻이 담긴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개혁과 변화는 말뿐이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도의 정치인인 자와 할랄는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암송하는 명언이자 정치 철학이기도 합니다. 항상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그분들의 일상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신뢰받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청년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지역 대학과 연계, 산·관·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별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집 앞까지 내려다주면서 함께 사랑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시간을 보냈던 풋풋하고 설렘 가득한 추억들이 때 순간들을 행복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지역 활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지요.**

제천·단양은 청풍호와 단양호를 중심으로 3대 국립공원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대한민국 중심의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다만 남한강을 중심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제천·단양은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한반도 중심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제1호 법안으로 「중

부권글로벌관광도시특별법」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수 관광단지를 국가 관광단지로 지정시키고 각종규제 해결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레저, 휴양 기능 등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천·단양을 명실상부한 건강·웰빙·휴양의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 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관광단지 지정·개발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제천·단양이 충북선·중앙선·태백선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이자 사통팔달 전국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린 공약 실천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중앙정부의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힘쓰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충북대 동문 여러분, 먼저 동문회보를 통해 지면상으로나마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개교 71주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충북대학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북대학교 대외협력위원으로 위촉되어 충북대가 대한민국 중심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동문들과 소통하며 충북대학교의 '진리' '정의' '개혁'의 건학이념의 가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희 편집위원)



청주시장 이범석 (행정 81)

“선거기간 시민들을 만나면서 어떤 청주를 원하는지 소통했고 공감했습니다. 정체된 청주를 성장 발전시켜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범석 동문(55·행정 85)은 동문회보와의 인터뷰에 “선거기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모교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매 순간 겸손한 자세로 시민만 보고, 청주만 생각하며 속 시원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동문은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은 어떤 의미를 담았나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9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시정목표는 청주시민들에게 약속한 청주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응축해 담았습니다. 시민들이 걱정없이 행복을 누리는 청주, 다시 말해 ‘잘 살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자’는 의미로 설정했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공약을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삼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동안 청주가 정체됐다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불만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청

주는 국토의 중심에 있고,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등 여러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과 기반을 활용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상생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 100만 자족도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청주를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전임 시정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거나 소통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통’이나 ‘노잼’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시내

원도심 고도제한입니다. 또 선거를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갈 곳, 놀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이제는 청주를 ‘꿀잼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수정입니다. 원도심 고도제한은 40년이나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공실(空室) 등 빈공간의 증가와 쇠퇴, 방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 청사 건립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의 존치는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고, 새 청사도 후대 공무원과 시민들이 써야하는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 변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입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매몰비용이 부담이지만 후손들이 이용할 청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맺은 다양한 인맥도 많습니다. 국정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맥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 확보에 강점과 역량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기까지 그 뿌리에는 모교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의 여러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소통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충북대의 발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동문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음성군수 조병욱 (행정대학원)

안녕하세요군수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음성군민 여러분과 충북대 동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민선 8기 2030 음성시 건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전략, 100대 공약사업 선정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음성군은 그동안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농업부터 산업까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외부에 뚜렷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결속력 강화, 지속 성장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2년여간 개발해 민선 8기 새로운 시작과 함께 도시브랜드 ‘상상대로 음성’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상상대로 음성’은 △우리의 상상(想像)이, 희망이 현실이 되는, 마치 마술처럼, 음성군민의 염원과 행복이 막힘없이 펼쳐지는 도시 △모든 분야에서 최고(상상, 上上)중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 △서로(상상, 相想)를 잇는 길을 품은 소통·공감 도시 △쪽뻐은 대로(大路)처럼 역동적 성장을 이루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선포한 ‘상상대로 음성’처럼 음성군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 무한한

상상력, 지속적인 성장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대학 다닐때요, 내가 군수가 될 것이라고 각오나 예상을 하셨는지요, 대학 다닐때의 포부를 알려주십시오

대학원을 다닐 때가 2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낮에는 도청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행정대학원에 다니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선출직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음성군수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직에 충실하면서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는 꿈은 갖고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 도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끌어 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지도교수님이신 강형기 교수님께 논문작성 등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재난 관련 분야는 이재은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원칙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수님이 두 가지를 연계하고 응용하도록 강의를 잘 해주셔서 실제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의 수업은 현재 군수로서 균정을 수행하는데도 밑거름이 되었으며,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음성군이 낱알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11만 군민과 9백여 공직자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2030 음성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맹동면·대소면을 읍으로 승격해 현재 읍인 음성읍·금왕읍을 포함해 4읍 5면으로 15만 시 승격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2030년까지 3만4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8기는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을 모토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 음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량기업 투자유치 8조5천억원 달성과 1만3천개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고, 올해 들어서만 7842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2030 음성시 건설에 한 발짝 다가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며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어느새 나의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태희 편집위원>



증평군수 이재영 (정책대학원)

안녕하세요 군수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동문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증평군수 이재영입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 충북대학교가 개교된지 벌써 71주년이 되었습니다.

본교는 1951년 전쟁상황에서도 충북도민의 염원으로 개교한 이래 수많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 온 명문 국립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29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뒤에는 충북대학교 동문회의 묵묵한 발걸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충북대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증평군수로 재임하며

충북대 동문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인재양성에도 늘 곁에 있는 동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동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이재영은 동문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앞서 걸어온 동문회의 노력에 힘을 싣는 동반자로서 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동문회를 위해 온 열정과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저를 지켜봐주시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시는데 대학 동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네요.

네 선거 기간 내 충북대인으로서 큰 자부심과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충북대 동문들이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동문 43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충북대 동문회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정치권

도약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한 사람으로 지역발전이 곧

대학 발전임을 잘 알기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대학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역량을 모아 모교, 지역,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갑시다.

증평군이 강소군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증평군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증평군 민선6기는 군민이 주인인 4년이 될 것입니다. 군이 펼치는 모든

사업과 행정은 오로지 군민을 먼저, 군민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증평은 내년이면 군 개청

20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4년은 증평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증평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 5천 억 원, 인구 5만 시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다져 증평 100년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 행복 돌봄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혁신경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증평 사랑옴살상품권,

증평행복카드 등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상가지역의 편의 시설 등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생활경제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영농체계를 구축,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테츠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에

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노인 등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군정을 하면서 충북대와 협력할 분야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상하시는게 있습니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없다보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증평 100년의 미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도시들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전기철도차량, 첨단

전기전자부품 산업 등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학·기업·증평군의 개방형 인재

양성 혁신 시스템을 구축, 지역의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증평에서 첨단산업이 꽃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충북대와

협력방안을 마련해 대학의 혁신(공급)-

일자리(수요)의 연계체제와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착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증평군민의 믿음으로 선택 받은 영광을

잊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어디서든

충북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동문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안태희 편집위원>

단양군수 김문근 (행정대학원)

“3만 명 인구를 반드시 회복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사는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65·행정대학원)는 동문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기업유치와 의료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뒀 ‘일 잘하는 군수’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충북도

농정국장, 단양부군수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단양 인구 3만 명 인구회복을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969년 9만4000여 명이던 단양인구는

올 3월 기준 2만81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단양은 출생아수는 적은데 반해

노인들의 사망 등 자연감소가 많고,

도시로의 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지방소멸의 잣대로 여겨는 3만 명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군민운동협의회 구성, 적극적인 귀농·

귀촌 정책 시행, 군립 임대아파트

지난 선거운동 기간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병원 좀 만들어 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상급병원을 유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 역올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지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나가는 젊은층들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 등도 담았습니다.

단양군립의료원의 도립 전환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현재 공사 중인 군립의료원은 2024년

개원 예정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과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립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중장기적으로 도립화

지속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지휘

보고(指揮報告)’도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단양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경시장

150m 부근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법면 확장을 통한

주차장 확보, 내집 울타리 철거해

주차장 조성시 보조금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단양의 1년 예산은 4500억 원 정도

입니다. 현재 자체 수입으로는 10%

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는

인건비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해 국비와 도비를

최대

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충북대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선거기간 성원해 준 동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소통하고 청렴한

열정적인 군수의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들께서도

단양을 많이 찾아주시고, 발전을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민선 8기 목표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은 어떤 의미를 담았나요.

주민과 관광객 모두 주차문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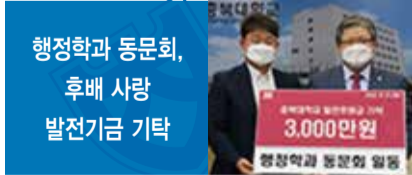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인문대학,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사후 관리 3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등급

인문대학이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1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후관리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최우수(S등급) 등급을 받았다.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은 인문학 분야의 진흥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총 72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 완료 이후 5년간(2019학년도 ~ 2023학년도) CORE 사업 주요 성과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CORE사업 사후관리는 글로벌지역학 모델, 기초학문심화 모델, 대학자제 모델로 구성돼 운영했으며 3차년도 사후관리기간은 ▲개편 학과 유지 및 개편 교육과정 운영 ▲인문학 사회수요 기반 전공교과목 개발 ▲K-MOOC 강좌 개발 및 활용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강좌 개발 및 운영 ▲국내 협력대학 간 공동교과목 개발 ▲인문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우리 대학 CORE사업 사후관리평가를 ▲역량기반 교육과정 구축 및 교과목 개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노력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전공 운영 ▲K-MOOC 교과목 개설의 정량적 실적과 과목 개발의 질적 특성 및 운영 성과 ▲성과 창출을 위한 대학본부의 노력 등을 우수사항으로 선정했다.

행정학과 동문회, 후배 사랑 숭선수범!

행정학과 동문회가 후배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 3천만 원을 6월 21일(화) 대학본부 접견실을 찾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응규 행정학과 동문회 회장, 유길영 행정학과 동문회 사무처장, 김은덕 행정학과 동문회 사무국장, 김수갑 총장, 이문순 대외협력본부장, 김학실 행정학과 학과장, 이광희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김응규 행정학과 동문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배들이 쾌적한 대학분위기에 학업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심시일만 정성을 보냈다.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동문 선배들의 마음이 닿길 바란다”라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이에 김수갑 총장은 “선배들의 후배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느꼈다. 우리 대학도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연차평가 '매우 우수' 쾌거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이 지난 6월 16일(목)자로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연차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는 쾌거를 거뒀다. 우리 대학은 미래자동차 분야 참여대학(주관대학:국민대)으로 C-track, 국내유일의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편성,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 미래자동차공학과 개설과 미래자동차융합전공을 신설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충북테크노파크, 세종테크노파크와의 MOU 체결, 공동활용대학으로 한국교통대학교와 MOU 체결 등 외부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1차 단계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나아가 우리 컨소시엄이 전체 8개 분야 컨소시엄 중 '매우우수'를 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미래자동차분야 컨소시엄은 인센티브로 10억 원을 받는다. 김근우 충북대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이 충북권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올해 사업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우수한 인재 양성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 학생들, 자율주행 분야의 최고 유망주가 되다!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 자율주행 분야의 최고 유망주를 키우는 교육 산실임을 증명했다. 지난 5월 3일(화)부터 5월 6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참가한 로보틱스연구실 학생들이 ADSC(Autonomous Driving Simulation Challenge)부문의 최고 상인 최우수상(세계전기차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 대회의 시상식은 지난 6월 7일(화)에 진행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학생들은 전자공학부 4학년 학생들로 구성(박은석, 황찬호, 용재형, 반영준, 임나영, 지도교수 박태형)됐으며, 이들은 장애물 탐지를 위하여 3D lidar 및 YOLO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객체 인지와 pure pursui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횡방향 제어, lattice planner를 활용하여 장애물 회피를 구현했다. 박은석 학생은 “대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충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팀원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위기를 잘 헤쳐나간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팀원 모두 각자 맡은 파트에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박태형 교수(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지난 4월부터 대회를 준비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수한 성과를 거둬 매우 뿌듯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혼신의 노력들을 보며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자율주행 분야 최고 유망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충북대학교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C-track, 3만평)에서 현장감 넘치는 실습과 더불어 플랫폼 활용 교육 지원으로 이렇게 우수한 성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보람되며 이에,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미래자동차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하며 확장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페레보드칙' 동아리 학생들이 6월 3일(금)에 '제27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호 유공자 청주시 표창장을 수상했다. 시아언어문화학과 (허다슬(4학년), 이창현(4학년), 김하람(4학년), 김수지(2학년), 정대훈(15학번) 학생들은 2021년 6월에 청주시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러시아어판 제작·배포 ▲청주시 봉명동 등 러시아어권 이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 방문해 분리수거 배출 시범 및 배출 요령 교육을 실행했으며 작년 12월에 청주시는 학생들의 환경 사랑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 학생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작년 활동에 이어 올해 2022년에는 학생들은 동아리 명칭 '페레보드칙'에서 청주시, 청주시민, 러시아어권 이주민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앞을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트로이카(삼두마차)로 변경해 활동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김수지(러시아어문화학과 2학년) 학생은 “앞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을 위해 분리수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원한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학과장은 “점점 증가하는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을 위한 환경홍보 활동은 자연환경 보존과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환경 조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학과가 지역사회와의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러시아어언어문화학과 학생들 환경의 날 기념 표창 수상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2년 간 재정지원을 받으며,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1년(2024년)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우리 대학은 올해 7억 2천 9백만 원의 예산을 받는다. 안병우 입학본부장은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와 교육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등 대입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 대학에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91개 대학을 선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대학의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고교 교과과정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교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을 추가하여 고교학점제 등 교육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술혁신선도형 대학 최종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에서 산학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기술혁신선도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가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 선정했으며, 충북대는 기술혁신선도형 13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선정으로 약5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대학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으로 ▲대학원 참여를 통한 글로벌 산학협력 및 교육 ▲고도화된 기업체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극대화 ▲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투자회수실적 증진 ▲지식/기술기반 창업 및 창업 기업 보육/성장 활성화를 통해 산학협력 기술혁신 및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목공학부 '무한에너지 팀' 학생들, 한국수자원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토목공학부의 실험실 창업동아리 '무한에너지(지도교수: 토목공학부 이효상, 연계기업: HQ테크 이현석)'의 이재일(석사 2년), 강동윤(3학년) 학생이 지난 5월 19일(목)부터 5월 20일(금)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2022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무한에너지' 팀은 'AS 스크류수차를 활용한 초소수력 발전기 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상을 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초소수력 발전을 위한 아רכิเม데스 수차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 수치해석 모형 및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하천, 하수관로 등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토목공학부 학생들, 한국수자원학회 우수발표논문상

2022학년도 장학금 수혜 사례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4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대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충북대학교 장학금 수혜 사례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혜 사례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에는 김수갑 총장, 박종진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상을 받는 장학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장학금으로 달라진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 대학 장학금 수혜 사례 전파를 통한 학생들의 장학금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시행됐으며, 총 57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교내 장학금 수혜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김수민 학생(행정학과 4학년)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 1명, 장려상 6명 등 총 8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수갑 총장은 "우리 대학의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소중한 경험담을 들려준 응모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경험들이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소개돼 충북대에서 꿈과 희망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좋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G-테크벤처센터, BI경영평가 9년 연속 'S등급' 달성

창업지원단 G-테크벤처센터가 창업생태계활성화를 리드하는 우수한 창업보육기관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41개 창업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BI 경영평가 결과, G-테크벤처센터(Post-BI)가 최우수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G-테크벤처센터가 중소창업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기업의 매출 증대와 수출역량강화, 고용인력 창출, 투자유치 활성화,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지식재산권 취득 증대 등의 성과로 드러났으며, 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G-테크벤처센터는 지속적인 창업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주)트윅을 'G센터 제3호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배출하고, AABI(아시아 창업보육협회) AWARDS 햇불기업상을 (주)유니아이 등 4개 기업이 수상하는 등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2021년에도 여성창업경진대회 중기부장관표창, 창업아이디어공모전 농림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주)에스와이솔루션을 비롯해 입주기업이 약 20건의 대외 수상을 하는 등 유망 우수기업발굴성과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태준 G-테크벤처센터장은 "체계적인 기업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입주기업인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차별화된 창업교육지원, R&D지원, 기술이전중개, 기업맞춤형 토털 멘토링, 시제품제작 및 대외홍보활성화 영상제작지원 등을 통한 기술혁신형 스타기업 육

성 및 미래지향적인 산·학·연·관·민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그린 성장을 위한 중부권 최고의 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럿거스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2주간 교육시스템 교류 체험

미국의 럿거스 주립대학(Rutgers University) 간호학과 학부생 10여 명이 지난 5월 16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우리 대학 간호학과와 선진 교육문화 교류를 위해 방문. 다양한 견학을 통해 경험을 늘리고 있다. 김철규 간호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럿거스대에서는 에스더 박(Esther Park)과 앨리스 박(Alice Park) 교수, 대학원 및 학부생 11명이 참여한다. 2주간의 교류 기간 동안 양 대학의 학생 및 교수단은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전문 간호사 현황 및 정책 비교 등에 대한 학술활동, 충북대병원 방문,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탐방 등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미국 럿거스대학 간호학과와 지난 2022년 3월 ▲교수,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류 ▲공동 연구 및 출판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에 대한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이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수갑 총장은 "먼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대학을 찾아 주신 럿거스 대학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양국이 서로 다른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해도 모두 나 이팅게일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에 뜻을 가진 만큼 배움이 많은 시간을 갖고, 환자를 위한 마음을 담아 훌륭한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업보육센터, 3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BI경영평가 최고등급 'S' 획득

우리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를 3년 연속 획득해 명실상부 최우수 창업보육센터임을 입증한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는 투자교육 및 피칭멘토링을 통해 2개사가 2021 K-캠프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라운드가 최종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고, 또한 IP교육 및 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프로그램참가기업 신규IP 38건 취득지원(특허10건, 실용신안1건, 상표19건, 디자인7건, 저작권1건)과 기술경쟁력 차별화로 IP기업지원사업에 13과제가 선정됐다. 기업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유망전시회(주)세계전람회와 연계하여 국제유아교육전, 베이비페어

등에 참여했으며, 창업생태계활성화를 위해 (재)넥스트챌린지, 충북산학융합본부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필요한 창업지원기관 연계, 기업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창업보육협회로 중부권 IP교육 거점센터로 선정돼 수요맞춤형 IP집중교육을 운영하는 등 기업육성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보육기업의 성과가 지난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매출 증대율은 56%가, 고용증가율은 23%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북대 창업보육센터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최경주 창업보육센터장은 "충북대 창업보육센터는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창업보육 BM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학대학 교수 및 동문(80학번) 일동, 후학 위한 마음 모아 기탁

약학대학 80학번 동문 일동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3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 대학본부 접견실을 찾아 약학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약학대학 80학번 동문을 대표해 조성민 동문회장(한미르약국 대표), 이준섭 동문(돌담약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충북대 김수갑 총장, 이문순 대외협력본부장, 홍진태 약학대 교수, 이광희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조성민 동문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러한 범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약학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작은 정성을 모아 후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길 바라며 십시일반 기탁금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약학대학 동문이어 약학대학 교수들도 4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대학본부 접견실을 찾아 후학들을 위해 써달라며 약학대학 시설확충기금 6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기탁자 측에서는 송석길 약학대학장, 정재경 약학대 부학장, 이경은 약학과장이 참석했으며, 김수갑 총장, 이문순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송석길 약학대학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형 약학인재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교수님들이 뜻을 모았다. 작은 정성이지만 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식목일 맞아 과산군에서 기증받은 교화 '미선나무' 식재

우리 대학은 제77회 식목일 행사를 맞아 4월 5일(화) 솔밭 옆에 조성된 개신동산에 교화인 미선나무 15본을 식재했다. 이 15본의 미선나무는 과산군에

서 기증한 20년 이상 자란 묘목으로 높이가 1.5m에 폭 1.0m 정도다. 이날 기념식수 행사에는 김수갑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자들과 우수동 농업생명환경대학장, 연평식 농업생명환경대학학술팀장과 미선나무를 기증한 과산군의 이차영 과산군수, 우창희 산림복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수갑 총장은 "식목일을 맞아 충북대의 교화인 미선나무꽃을 심게 됐다. 무엇보다 과산군에서 기증해주신 이 15본의 미선나무꽃에 충북대 구성원 모두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한 날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식재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미래 100년을 향해 함께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으로 열매의 모양이 둥근 부채를 닮아 미선나무라 불리며, 특히 과산에서 자라는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 147호로 지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깊다. 미선나무꽃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꽃의 꽃말처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피어나는 충북대학교를 발판삼아 학생들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화로 지정했다.



Grand ICT 연구센터, 1단계 평가 '1위' 성과

우리대학 Grand ICT 연구센터(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1단계(2020-2021년) 평가에서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Grand ICT 연구센터는 2단계 기간인 2022년~2025년에 사업비의 10%(8억)가 증액돼 110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능화 지역 혁신 공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Full-time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재직자 석·박사과정을 위한 프로젝트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우수한 과학기술적 성과 및 기술이전, 사업화 등 최고 연구실적 달성 ▲지역 협업체 운영을 통한 지능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둬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는 이처럼 충청권 유일의 Grand ICT연구센터로서 지역 지능화 확산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1위를 달성했다. 박태형 Grand ICT 연구센터장은 "대학, 지자체, 사업체 관계자분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 미래기술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과 기업발전 혁신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는 충청권 Grand ICT 연구센터로 2027년까지 8년간 ▲재직자 지능화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인공지능학과 대학원 운영 ▲지능화 혁신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지능화 기술 확산과 공유하기 위한 지역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보은소방서장 김혜숙 (회계 84)

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기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회계학과 84학번 김혜숙입니다. 저는 1988년 8월 20일에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하여 32년이 지나 작년 1월 소방정(소방서장급)으로 승진하여 1년 6개월간 충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으로 일을 한후 7월 1일자로 보은소방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충북소방에서 이를 수 있는 최고 자리까지 승진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후배들께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어야 하는 부담감도 생깁니다. 충북도내에서만 직장생활을 했기에 충북대학교가 저한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자긍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소방의 최고 자리까지 승진하신 만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으로서 현장 활동도 잘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소방 조직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를 높여 저와 같이 근무하는 보은소방서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면서 소방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하신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보은소방서 관내 법주사, (주) 한화 등 화재예방 중점 관리 대상을 방문하여 소방시설과 유사시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 현장지도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화합된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근무하는 현장출동부서 전 직원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 활동시 안전과 대형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 써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고충을 살피기 위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988년 여름에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직업 선택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몇 해 전에 대학 졸업 후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당시 주위 친구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소방에 입문한 1988년에는 여성 행정 분야로 공개채용을 하였고 그 당시 우리 소방은 화재 예방과 진압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지금과는 그 역할과 위상이 많이 달랐고, 특히 여성의 직업으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던 시대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면서 직업관도 투철해지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도 커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소방은 가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 국민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 힘든 직종이 공무원 집단이지만 소방관은 현장에 가면 늘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멋진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근무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를 하며 인사, 회계, 기획, 예방 등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을 하였고, 현장 활동은 소방위로 승진하면서 사직파출소장(현, 119안전센터)으로 일선 현장지휘관으로 현장경험을 하였습니다.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때는 전국 최초로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청 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장비팀장으로 근무할 때 충북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5년 후 2021년 7월 예방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때 개관을 하고 충북안전체험관 시작부터 기반을 잡을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방청 주관 2021년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 평가도 충북 최초

전국 1위 달성하는 등 다수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내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에 단독 경보형 감지를 설치하는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 좋은 결과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서장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장님의 활동에 유독 전국 최초, 전국 최고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나 봅니다. 앞으로 서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신지요?

보은군민과 소방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는 소방행정을 펼쳐 지역주민들께 한층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제 역량을 발휘해 멋진 소방서를 만들어 직원들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충북대 재학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대학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참 수줍음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남학생이 공강 시간에 잔디밭에 여럿이 앉아 있으면 그 앞을 못 지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다녔을 정도로요. (웃음) 친정아버지가 교사셨는데 장학금을 받으면 저한테 절반을 용돈으로 주셔서 장학금 받는 재미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당시 A급 장학금을 매 학기 받았습니. 시험 볼 때 기억나는 것이 주관식 시험이었는데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을 보신 교수님께서 김혜숙은 머리가 커서 암기가 잘되나보다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완벽한 서장님께서서는 어떤 엄마인지, 또 아내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92년에 결혼하여 남편과 2명의 아들을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당시는 지금처럼 육아를 국가에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사랑을 다 못 준 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큰 본보기가 되었나봐요. 큰아들이 올 초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겠다며 엄마가 존경스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불임성이 좋고 애교가 많으며, 둘째 아들은 사회성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이다 보니 요즘은 딸 있는 집이 많이 부럽기도 하네요.

업무처리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직원을 배려해 직원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

저 있습니다. 사실 유리천장을 뚫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점이 비결이신가요?

어떤 업무를 하든 맡은 업무는 욕심을 가지고 전임자보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주위에서도 제 마음을 알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방이 남초 직장이다 보니 90년 후반에 소방본부 주요부서에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같이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은 전원 승진 심사에서 승진을 하는데, 저는 승진 심사에 탈락을 하여 좌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아 지금도 소방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움이 매우 큼니다. 당시에는 도청 내에서 직원들한테조차도 인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당시에 심적으로 많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조직도 한발 앞서 나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든 신입직원들한테 만족스러운 직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직업을 선택하려면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박진희 편집위원>

주요 약력

-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2014년 7월)
- 충북소방본부 예산장비팀장 (2016년 7월)
- 충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장 (2018년 1월)
- 옥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2020년 1월)
- 충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2021년 1월)
- 보은소방서장 (2022년 7월)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 입금시 성명·학과·입학년도 입력 요망!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농협 301-0229-7165-71 (예금주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 문의. 043-261-3121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팀장 **이종희** (입학 83)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림학과인 입학과에 1983년 입학해 1990년 졸업한 이종희입니다. 졸업 후 충북대학교 학생처 학생과에서 31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인권센터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학생과에서 보냈는데, 학생들 특히 총학생회 지원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대 인권센터에서 맡고 계신 업무와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권센터는 우리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총장 직속 기구입니다. 총장 직속기구이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해요.

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와 양성평등상담소가 있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팀장으로서 이분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외적인 협력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직원재직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직원재직동문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회장님의 비전은 무엇인지요?**

학번순서대로 내려오며 회장을 맡는 것이 직원재직동문회의 관례여서 얼떨결에 회장을 맡았네요. 얼떨결에 맡고 보니 책임감에 여러 생각을 했고, 지금

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동문회는 뭐니 뭐니 해도 회원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최고이지 싶어요. 일단은 동문 모임에 최대한 많은 동문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동문이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정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문회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동문의 발전이 곧 우리 학교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한 동문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학사주무관으로 30여 년 근무 하셨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보람찬 순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사주무관 선생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직장생활의 시작과 마무리를 모교인 충북대에서 하신다는 만큼 충북대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대 동문으로서 충북대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졸업한 모교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복이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대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위기에 따른 정원 축소입니다. 이는 우리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예술 대학이 없습니다. 예술 대학을 설립하면 그만큼 대학 정원이 증가할 겁니다. 또 지역의 다른 대학과의 통합도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충북대” 3글자로 3행시 부탁드립니다!**

충: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충북대학교는 수많은 인재가 북: 북적거려 남녀노소 모두가 오고 싶은 대: 대학 중의 으뜸, 충북대학교

**예비 충북대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뭘까요?**

“충북대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졸업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등록금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으며, 전체 학생 대비 60% 이상이 각종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합니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 진출해 후배들의 천군만마가 되어 줄 멋진 선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북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청주산림조합 지도상무 **남창우** (입학 91)

**인터뷰 전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입학과(現 산림학과) 91학번으로 입학하여 졸업해인 1998년에 청주산림조합에 입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남창우입니다.

**현재 청주산림조합 지도상무로 계시는데요. 산림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림조합은 1962년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산림경영에 대한 경영지도,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및 임업인에 대한 지원, 사유림산림경영지도, 산림경영 기반구축, 임업금융지원, 교육지원사

업,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조합원관리, 산림경영지도, 민관협력형시범사업, 임도사방댐시공 및 벌초도우미서비스, 로컬푸드, 상호금융사업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근무는 대학의 전공과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문님께서 생각하시는 충북대 산림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후배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충북대학교 산림학과는 무엇보다도 오래된 전통과 역량있는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강의와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에 뜻이 있는 후배라면 본인의 능력

에 맞게 근무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하고 싶은 업무, 기간, 승진, 급여, 복리, 자기계발 등은 타 기업 보다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드니 산림조합에 뜻이 있는 후배들은 매년 공채시험이 있으니 도전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산림조합 이외에도 공기업, 공무원, 제철 펄프회사, 산림관리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점차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사무국장업무를 6년여 수행하였기에 잠시 쉬 후 동문회가 육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조력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때 해놓은 활동 중 현재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있으신가요?**

대학 때 동기 선배들과의 등산 동아리로 활동 시 수시로 도내의 명산을 돌면서 체력을 기른 것이 산림조합에서 근무 시 기본체력이 바탕이 되어 수 십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을 되돌아볼 때 대학생 때 못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해보지 못한 부분이 지금에서야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번쯤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까지 입학과 동문회 사무국장으로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동문회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점/힘든점을 무엇이었으며, 동문입장에서 충북대학교 동문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016년부터 6년 여간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동문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좋은 점은 그동안 몰랐던 좋은 선배들을 알게 된점이며, 힘든 점은 동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총동문회에 바라는 점은 모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늘 건승함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충북대” 3글자로 3행시 부탁드립니다.**

충: 충청북도의 대표대학인 충대에서 북: 북두칠성처럼 언제 어디서든 빛나는 대: 대학인으로 거듭나세요~ 충북대 언제나 파이팅~

**마지막으로 충북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도 극심해지고 날도 무더운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아스팔트보강재(ESGRID)

◎ 조달청 우수제품

미국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아스팔트개질제(ESGFIBER)

◎ 조달청 혁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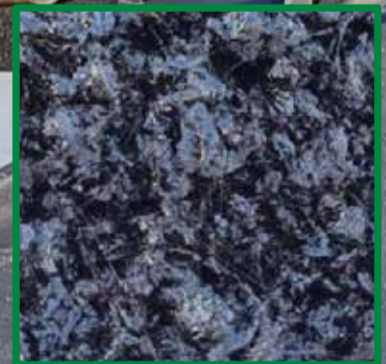
미국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 ESGRID®, ESGFIBER®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 보강공법



**평면형 아스팔트 포장 보강 (2차원 보강공법)**

택코팅 보호, 반사균열 방지, 소성변형 억제



**입체형 아스팔트 포장 보강 (3차원 보강공법)**

균열방지, 소성변형억제, 포트홀 방지

➔ **포장유지보수비 절감**

**ESG**  
이에스지산업 | 주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284번길 309(신일동)

042-671-1997 / <http://esg.kr>

대표이사 김형수(토목 97)

이에스지산업(주)는 도로포장의 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해 신개념 아스팔트 포장 보강재 ESGRID와 유리섬유 아스팔트 개질제 ESGFIBER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보다 진취적인 연구개발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아스팔트 관련 전문기업이다. 이에스지산업(주)를 이끌고 있는 김형수(토목공학 과 97) 동문을 만나 보았다.



ESG산업 대표 김형수 (토목 97)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에스지산업(주) 대표이사 김형수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아스팔트 보강재 제조업체인 이에스지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스지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이에스지산업은 유리섬유(glass fiber)로 그리드 형태의 아스팔트 보강재(ESGRID)와 아스팔트 혼합물에 첨가하는 개질제(ESGFIBER)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4년에 회사를 설립하였으니까 어느덧 9년 차가 되었네요. 사업 초기에는 아스팔트 보강재료만 사업을 하였는데, 현재는 개질제의 개발로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콘크리트 구조물로도 사업 분야를 넓히고자 다양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질제’라 하면 생소한 용어일 것 같은데요, 어떤 물질에 다른 종류의 물질을 반응시켜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곧 아스팔트 개질제란 아스팔트에 첨가하여 아스팔트 도로의 파손이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첨가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인 ESGRID는 아스팔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소재 제품입니다.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에는 텍코팅(접착제) 불량으로 인해 신·구 포장층의 분리, 조기피로 균열, 소성변형, 포트홀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ESGRID를 사용함으로써 고온의 아스팔트에 녹는 PE필름 적용으로 텍코팅을 보호하고 신·구 포장층의 접착력 확보로 포트홀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와이어 메시(WIRE MESH)와 같은 효과로 균열 발생을 방지합니다. 또한 포장층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에너지를 감소함으로써 소성변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ESGFIBER는 유리섬유 아스팔트 개질제로, 유리섬유를 폴리에틸렌과 미세석분으로 코팅한 제품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 시 유리섬유를 코팅한 코팅제는 열기에 의해 녹아 화학적 개질을 하고, 유리섬유는 골재 사이에 고르게 분산되어 골재와 골재를 잡아주는 물리적 개질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로 인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수명은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며, 효과로는 특히 소성변형에 강하며, 수분 박리저항성, 균열저항성도 증가합니다.

우리 회사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제품 성능인증서도 받았고, 조달청 우수제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2006년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2년간 일하며 건설 신기술 및 보수보강 공법과 관련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기업체 2곳에서 탄소섬유와 유리섬유로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재와 아스팔트 보강재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회사 사정으로 2번의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에서 쉬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했던 기술을 보강하여 특허(2건)를 신청하고, 상표도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자금으로 공장을 임대하고 장비를 세팅하여 지금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설립 초기에 창업자금을 약 5개월에 다 소진하고 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영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특허등록 전에는 특허가 없어서 못 써준다고 하더니 특허등록이 되고 나니 특허제품이라 수익계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금이 부족해 생산까지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015년도에 생산을 외주가공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은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제품 성능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관련 부처의 성능인증도 받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도 되면서 매출이 늘었고, 2020년에는 다시 자체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스지산업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임직원 상호 간의 화합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SG산업은 E(Evolution) S(Specialist) G(Global)의 약자로, 변화에 적응하며, 전문적인 기술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인증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십 건의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기적으로 임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화합 또한 우리 회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시절에는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저런 모임이 많았어요. 학과 행사, 동아리 활동, 동문회 활동 등 여러 모임에서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소운동장, 대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응원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 시절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것이 이후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때는 연구실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그중에 다양한 사이즈의 보(Beam)나 시편을 보강하는 실험을 했던 게 많이 생각납니다. 늘 실험실에만 매여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가끔은 같은 실험실에 있는 선배들과 술자리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어요. 언젠가 한여름에 휴가를 받아 학부생들과 저희 고향집(문경)에 가서 즐겁게 보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고민하는 순간에도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정진없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자기 길이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일단 부딪쳐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어 보니 일상생활 속이나 현장(공사 현장, 작업 현장 등)에서 아이디어를 특허화할 수 있는 게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를 제품화해서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멋진 사업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2022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6명이 합격하였다. 그동안 매년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올해에는 6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시험 합격생 중에서 변세운(농업경제 16) 학생과 최진희(국어국문 17) 학생을 만나 보았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운)** 저는 농업경제학과 16학번 졸업생이고, 지역인재 7급을 3년 정도 준비해서 이번에 행정직으로 합격하게 된 변세운이라고 합니다.

**(진희)**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17학번 최진희라고 합니다. 저는 약 8개월 동안의 수험생활을 거쳐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인터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역인재 7급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희)** 지역인재 7급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고,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채용제도인데요. 학교별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직원을 선발하고, 다시 수습 근무 1년을 거쳐서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에 임용됩니다. 지역인재 7급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하게 되었나요?**

**(세운)**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구성원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의 자격조건이 지역인재 7급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작을 한 것은 3학년인 2018년도 여름부터였는데 실제로 집중한 기간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됩니다. 3학년 2학기부터 준비를 해서 4학년 1학기 때 교내면접에서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2년 정도 휴학과 졸업 유예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진희)** 저는 수험생활은 짧지만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교직 이수를 시작했는데 임용고시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져서 취업지원본부에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학점이 좋은 편이어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하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사익을 추구하는 일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어 공직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준비 과정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세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제도 자체의 시스템이었어요.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12월에 학교추천이 있고, 3월에 1차 시험을 보는데, 학교추천에서 떨어져 버리면 시험을 볼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적 부담감이 가

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내면접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해도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때 주변에서 한 번 더 해 보라고 해서 더 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험은 일단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이 시험은 시험을 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니까 너무 막연한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일 어려웠어요.

**(진희)**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거나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갔고, 식비와 같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모



되었습다.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나 모의고사비를 지원하지 않나요?)** 물론 학교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죠.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주거나 모의고사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그것 외에 추가로 더 들으려면 사비를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세운)** 교내면접에 떨어지고 나서 오랜 시간을 우울해 했었는데 그것을 생활 습관으로 교정하려고 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 언어논리였는데 그것을 위해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하는 것을 매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안정도가 저다주고 실제로 성적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희)** 저는 '이 시험 준비가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둘이 서로 상반되네요. 3년과 8개월의 차이인가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거리와 단거리처럼. 세운이 언니는 '지금 힘드니까 약간 쉬었다 가더라도 회복해서 열심히 뛰자'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힘든 과정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돈을 미리 준비해서 시험 준비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특별한 취업 전략이나 강점은 무엇인가요?**

**(진희)**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많이 해야 하고, 타인과의 대화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필기를 준비할 때는 제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던 게 발전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스테디워드들과 소통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때 저의 의사소통 능력이 발휘되어서 스테디워드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다면?**

**(진희)**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어떤 답변을 했을 때 관련 질문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지원자께서는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답변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석대로라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했었는데, 제가 당황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 버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세운)** 저는 교내면접에서는 "혹시 완벽주의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오래 준비를 하다 보니 한국사도 1급이고, 토익도 높은 점수였고, 자소서도 어느 정도 잘 썼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실제 면접장에서는 다 비슷한 공통질문 있었는데 저한테만 했던 질문 중에는 "지원자가 생각하는 6차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나요?**

**(세운)** 취업지원본부와 인재양성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취업지원본부에서는 준비반에서 교재지원비 30만원을 주셨고, 모의고사 지원비 1인당 15만원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서 합격한 선배의 멘토링이나 면접 준비 등을 도와주셨고, 인재양성원에서는 1인 1좌석 전용 열람실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컸습니다. 기숙사가 아니었다면 학생회관까지 가야 했는데 가깝게 있어서 밥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진희)** 저는 대학 생활 동안 꾸준히 교육봉사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농어촌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서 진로, 학업,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200시간이 넘는 봉사를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공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담당할 멘티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분들께도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더 알아가고 자신이 무엇을 더 잘하는지도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운)**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지 항상 고민하며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 일찍부터 취업 고민을 시작했고, 교내 취업지원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로 특강이나 외부 강의 등을 찾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관심이 가는 타 전공을 수강하거나 청강했던 것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기별로는 1학년 때 기자단 활동, 2학년 때 해외탐방, 3,4학년 때 교생실습 그리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고민하면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직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희)**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학점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해요. 학점의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친구들은 학점만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꿈이 생기든지 자신의 양분이 되는 것이어서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운)** 저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올인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희)** 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할게요. 국문과 후배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어문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인이 취업 전선에서 뒤쳐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공계열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PSAT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운 언니가 말한 것처럼 언어가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률을 가지고 본인을 판단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그걸 강점으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장충덕 편집위원〉

### 늘 해 랑



#### '늘해랑'은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늘해랑은 2019년 9월 개설되어 2020년 9월 정식으로 중앙동아리로 자리 잡은 충북대학교의 유일한 응원단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치어리딩 중 대학 응원단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액션 치어리딩을 연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 치어리딩은 팔을 돌리거나 강하게 찌르는 동작과 절제되고 통일된 군무를 선보이는 치어리딩입니다. 거리공연, 전국 치어리딩 대회, 유튜브 콘텐츠 촬영, 학교 축제, 외부 섭외 공연 등 많은 자리에서 늘해랑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왜 응원단 이름이 '늘해랑' 인가요?

늘 해와 같이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이라는 늘해랑의 뜻처럼 밝고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동아리 회장으로서 늘해랑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밝은 분위기에서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단합력도 좋고, 다들 즐겁게 연습에 참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 곡의 응원무와 대형을 기획부 임원들이 직접 창작하고 있습니다. 곡과 잘 어울리면서 늘해랑만의 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응원단에서 저희 응원무를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올 때 가장 뿌듯합니다.

#### 새로운 곡을 연습하여 무대에 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선정한 곡에 맞게 기획부에서 전체적인 무대를 구상하고, 응원무와 대형을 창작합니다. 곡이 완성되면 임원들이 먼저 안무를 숙지한 후 연습시간에 기획부를 도와 연습을

이끌어 나갑니다. 매 연습마다 영상을 찍어 피드백에 활용하고 공연 전에는 거울 없이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무대처럼 연습을 진행합니다.

#### 가장 큰 행사나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2021 제 5회 청년의 날 치어리딩 페스티벌이 기억에 납니다. 처음으로 참가한 치어리딩 대회이자 예선을 통과한 열 팀 중 한 팀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 무대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대학 응원단들의 무대도 직접 보고, 많은 분들께 '늘해랑'이라는 팀을 인식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늘해랑의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가요?

저희 무대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도록 공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유튜브 콘텐츠도 꾸준히 업로드하여 늘해랑을 더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 치어리딩 대회에도 참가하여 무대 경험과 수상 실적도 쌓고 싶습니다.

#### 차기 늘해랑의 예비 단원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먼저 액션 치어리딩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체력도 기르고, 새로운 동작을 익히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준비한 곡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 생활에 특별한 순간들을 남기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늘해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곡을 연습하여 무대에 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선정한 곡에 맞게 기획부에서 전체적인 무대를 구상하고, 응원무와 대형을 창작합니다. 곡이 완성되면 임원들이 먼저 안무를 숙지한 후 연습시간에 기획부를 도와 연습을 이끌어 나갑니다. 매 연습마다 영상을 찍어 피드백에 활용하고 공연 전에는 거울 없이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무대처럼 연습을 진행합니다.



### 충북대 깃발 35년 만에 돌아왔다!

모교 박물관(관장 김영관, 사학 85)에서는 지난 8월 12일에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충북대학교 깃발을 환수했다. 이번에 환수한 깃발은 35년 전인 1988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16회 대통령기 쟁탈 국립대학교 체육대회 때 게양했던 것으로, 체육대회를 마친 후 학교로 가져오지 않은 것을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었다. 환수한 깃발은 보존처리를 거친 후 충북대학교역사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대통령기 쟁탈 국립대학교 체육

대회'는 당시 문교부가 후원하고 국립대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대학교류전으로 전국의 국립대학교를 돌면서 개최하였다. 197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매년 개최되었고, 2016년부터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제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어오고 있다. 모교 박물관에서는 학교사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오고 있으며, 최근 개교 70주년을 즈음해 약 1천여 점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다. 동문들의 추억이 깃든 학교사 자료들은 현재 충북대학교역사관 1층에 전시되고 있다.



#### 동문회보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어강석(국문 87) \* 위원 : 김영관(사학 85) 장충덕(국문 88) 장기우(교육 90) 박진희(국문 91) 박준영(임학 94) 김두환(체육 98) 김미경(농생 00) 황동민(안전 87) 안태희(국어교육 87)

# 개원 인사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교에서 멀지 않은 흥덕구 복대동에 크지는 않지만  
나름 알차다고 자부하는 림스신경외과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지면으로라도 늦은 인사를 드립니다.

먼길을 돌아온 느낌이고 뒤늦게 내린 결정이지만,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 병원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 우직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리라 믿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동문들의 건강과 평안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원장 임 병 철  
충북대학교 의대 86학번

## 患者中心

정확한 진단과 치료  
최선을 다하는 간호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최선

### 척추 디스크 협착증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 풍선신경성형술 / 추간공확장술

### 예방 및 진료

뇌검사 두통 관절 통증

### 프로로 제통 신경주사

## 병원 시설 및 장비



MRI



CT



C-arm



Xray



BMD



ESWT



수술실



병동



## 진료 시간

월,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화,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수, 요 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토, 요 일 오전 9시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 오시는 길



# 림스신경외과

RIMS NEUROCLINIC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60

**1533-3933**